

# 해남군, 자원순환 거점 '자원순환복합센터' 완공

### 해남읍 해리에 1114㎡ 규모...재활용품 교환·교육장·나눔공간 주민참여형 시스템...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표준 모델로 운영

해남군의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의 거점이 될 자원순환복합센터가 신축돼 운영을 시작했다. 해남군 해리에 위치한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지난 2020년 정부 그린뉴딜 과제인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해남읍 해리에 지상 3층, 1114㎡ 규모로 신축했다. 센터 1층에는 재활용품 교환센터와 리필숍, 2층에는 교육장 및 재활용품 나눔공간, 공유물품 대여센터, 기획전시 공간이 들어섰다. 3층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자원순환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와 MR의 입체 체험교육장을 조성했고, 주민들이 자원순환 포인트로 음료 등을 마시며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구성했다. 자원순환복합센터는 건축물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센터 내 모든 시설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인 '땅끝희망이' 포인트를 사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관식은 다음 달 16일로 나머지 시설들도 관람객들을 맞아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린도시 '활활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자원순환 시설물 설치와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이어 자원순환복합센터 건립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읍 시가지에 투명페트병과 캔을 수거할 수 있는 무인수거기 30대를 설치했고,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미니화단 및 공동텃밭 4개소를 조성

해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또 소통넷에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들이 자원순환사업 참여 현황 및 탄소 및 온실가스 저감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거점수거센터를 통한 자원순환사업 외에도 전기버스를 이용한 이동식 수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도 병행해 운영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착실히 기반을 마련해온 자원순환 사업이 이번 자원순환복합센터의 완공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해남군이 자원순환1번지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 모두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을 생활화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해리에 위치한 자원순환복합센터. (해남군 제공)

## '전국 생산량 2위' 영광 천일염 올해 첫 채염 행사

### 염산면 균유염전서...풍년 기원

전국 생산량 2위를 차지하는 영광 천일염이 올해 처음 생산됐다. 영광군과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염산면 천일염자연학습장에서 '천일염 채염 행사'를 열고 무사 풍년을 기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강명수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 오미하 전남도의원, 강필규 영광군의회 의장, 김강현 군의원,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장, 천일염 생산자 110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의 올해 첫 천일염 채염 행사는 '소금이 산처럼 쌓인다'는 뜻을 지닌 염산면 균유염전에서 진행했다. 염산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금이 이룸에 들어간 지역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철산 앞바다 갯벌을 품고 있다. 이곳에서 밀고 들어오는 청정 바닷물을 활용해 전통 제조 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영광 천일염은 천연 미네랄과 알칼리 성분이



지난 22일 영광군 염산면 천일염자연학습장에서 올해 첫 '천일염 채염 행사'가 열리고 있다.

풍부하고 염화나트륨 함량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정부 지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천일염 생산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염전 바닥 개선, 소금생산시설 자동화 장비 보급 등 천일염 생산기반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품질의 명품 영광 천일염 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군농기센터 무화과 병해충 예찰조 운영

### 곰보바구미 피해 최소화 총력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3일부터 무화과 병해충 예찰조를 편성해 집중 예찰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무화과 재배 농가에서 발생하는 무화과 곰보바구미(사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조를 편성해 현장기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화과곰보바구미 성충은 나무 밑동 주위 땅속에 살다 밤에 줄기를 타고 올라가 어린잎이나 과실을 갉아 먹는다. 유충은 나무 밑동 목질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며, 심할 경우 고사에 이르게 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무화과곰보바구미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제하려면 아간에 손전등을 이용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성충을 잡거나, 접촉



성 살충제인 비펜트린-베타사이플로트린 가루약을 뿌리면 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화과곰보바구미 성충의 활동 시기인 지금 예방적 집중 방제로 무화과 농가에서 피해 최소화해 나셔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

## 500년 효행전통 모두의 귀감 되길

### 전주이씨 사매당가문

### '외손봉사 500년' 기념행사

### 묘지정비·묘비제막·시제봉행

전주이씨 사매당가문에서 행한 '외손봉사(外孫奉祀) 500년'을 기리는 기념식이 지난 23일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 692-11 전주최씨 참봉공산소에서 외후손과 유림(儒林)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렸다. '외손봉사'란 외손(外孫)이 외조(外祖)의 제사를 모시는 일을 말한다.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출신의 사매당(四梅堂) 이응중(李應鍾)은 고창의 명문가 전주최씨 화릉참봉(和陵參奉) 최구연(崔九淵)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후사(後嗣) 없는 장인 내외분이 돌아가시자 슬하 5남 2녀와 함께 극진히 산소를 돌보고 제사를 모셨다. 이응중(1522-1605)은 조선조 개국공신 안산부원군 양도공 이천우의 6대 종손으로, 진사가 되어 '가례부주(家禮附註)'라는 책을 저술한 예학자이며, 임진왜란 때는 창의해 영광성을 지킨 의병장이기도 하다. 16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이 가문의 외손봉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이응중 슬하 5형제(克操·克持·克夫·克揚·克顯)의 자손들이 70리(28km)나 떨어진 고창 최구연의 산소에 가서 제향을 모신 줄기찬 효행의 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고 종손인 경당(敬堂)

이용연(李龍淵)의 3형제가 그곳에서 묘제를 행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장구한 세월이 걸친 외손봉사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경우이고, 타 종중의 귀감이 됐다. 가문 후손들의 선외조(先外祖)를 향한 추모 열기가 사람들에게 숭조와 보은의 정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창 최구연 내외의 묘역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1부 묘비 제막식과 시제봉행, 2부 시제 이춘식 영광향교 유도회장의 집례로 집행부의 경과보고, 이금환 회장의 인사말, 유공승 영광향교 전 전교의 축사, 이동재 종중 원로의 감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사매당가문에서는 지난해 참봉공 시제일(음력 3월 15일)을 계기로, 이 오랜 효행전통을 기념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기념사업회'를 발족했다. 이에 공감한 친손들은 물론 방손(傍孫), 외손, 지역종친회, 종교기관,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성금을 기탁해 4000여만원이 후원이 답지했다. 사업회는 이 기금으로 참봉공 내외의 퇴락한 묘역을 정화한 후 묘비를 세웠으며, 영광 사매당 종가와 고창 묘소 입구에 외손들의 봉향 사적을 기록한 조형물(이명환 원로작가·홍기삼 전 동국대총장 글)을 설치했다. 사매당가문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기념사업회가 발족한 만큼 효행의 전통을 이어가게 중요하다"며 "잔여 기금은 향후 봉향 비용으로 사용돼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전주이씨 사매당가문 기념사업회가 연 '외손봉사(外孫奉祀) 500년' 기념식에서 외후손과 유림이 묘비를 제막하고 있다.

## 완도 보길도 여섯째 아이 출산에 온동네 '떠들썩'

### 신우철 군수 직접 찾아 축하 출산 장려금 2100만원 지원 사회단체·기관들 격려금·선물

완도 보길도에 여섯째 아이를 낳은 가정이 생겼다. 완도군은 지난 22일 신우철 완도군수가 보길면 백도리 김찬성·김희정씨 부부를 찾아 여섯째 출산을 축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복 양식을 하는 김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여섯째 아이 강현군을 품에 안았다. 신군수는 김씨 부부에게 '아기 주민등록증'과 출생 축하 선물 꾸러미를 전했다. 완도군에서는 여섯째 아이를 낳은 김씨 부부에게 출산 장려금 2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500만 원을,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1300만 원, 넷째 15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 여섯째 21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 외에도 돌말이 축하금,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장난감 도서관 회비 감면 등 다자녀 출생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완도군체육회와 완도군청년연합회, 농협



신우철(맨 오른쪽) 완도군수가 최근 여섯째 아이를 낳은 보길면 김찬성·김희정씨 부부를 찾아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지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완도 소안수협,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보길면 번영회 등 기관·사회단체들도 함께 격려금과 선물을 전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농협 완도군지부는 김씨 부부에게 전기밥솥을, 대한적십자사는 생활용품 꾸러미, 행복복지재단은 온누리상품권과 쌀을 후원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 기준 완도지역 출생아 수는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명)보다 늘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저출생 시대에 여섯째 아이 출생은 지역의 경사이고 김강현군은 복명이라며 "완도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가거도에서 자라고 있는 나한송.

## 신안군 군목, 소나무서 나한송으로 바뀌

신안군이 군목을 '나한송'으로 바꿨다. 신안군은 지난 19일 군의 상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신안군 상징 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신안군의 군목을 기존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소나무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신안군을 포함한 34개 시군이 상징물로 지정해왔다. 신안 가거도에는 수령 274년의 나한송이 자라고 있어 소나무보다 지역을 더 잘 상징한다는 의견

이 나왔다. 신안군 측은 나한송이 단순한 수목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군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안군은 최근 지도상에 나한송 4500그루를 심어 10리 길(4km)을 조성했다. 앞으로 40리 길을 추가로 만들어 전체 나한송 50리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